

일본 OJT연수를 다녀와서

- 일본 IT기업 OJT연수 참가후기 -

미디어학과 문승현

아주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여러 해외 프로그램들에 참석해 보았지만, 이번에 참가한 OJT프로그램처럼 해외에 있는 기업에 직접 가보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직 단기로라도 인턴을 해 본 경험이 없는데, 해외인 일본에 있는, 그것도 일본의 수도의 한 가운데인 도쿄역 근처에 있는 회사에 단기 인턴십 참가가 확정 되었을 때는 상당히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기로라도 직접 회사에 다녀올 수 있다는 사실이 설레기도 하였으며, 지금까지 궁금했던 일본의 기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도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취업난인 한국과는 다르게 매우 취업이 잘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일 할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줄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한국과는 반대로 일본은 일을 할 사람이 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경영학과 교수님께 자발적 실업을 제외하면 일본은 사실상 완전취업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국제학부의 교수님께도 일본의 취업 상황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외현장연구 수업에 참가하여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에선 한국에서처럼 회사 실적 및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쉽게 직원들을 해고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취업의 상황도 좋고, 직원들도 쉽게 잘리지 않는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 된다니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노동 환경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본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흥미가 있던 저에게 있어서 이번의 일본 기업 단기 인턴십(OJT)은 일본의 노동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의 기업과는 어떤 점들이 다른지, 내가 일본에 취업한다면 나에게도 잘 맞을지 등 여러 가지 점들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인턴십은 총 3박 4일의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턴십 기간에 회사에 갈 때는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해야 한다고 회사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턴이고 회사에 처음 가는 것이기

에 정장을 입고 오라는 것인가 생각 하였지만, 회사에 가 보고 놀라웠던 것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자 이외에도 고위직 사람들부터 일반 직원, 신입사원까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이번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된 일본 기업을 포함해서 일본에는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하는 회사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IT기업이라고 하면 사복을 입고 편안하게 출근할 수 있는 회사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본에서도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도 수많은 출근하는 사람들이 전부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의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보수적이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장을 입고 출근 하는 것도 그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간 회사는 다이코 라는 회사의 IT비즈니스 사업부였습니다. 회사에 가서 OJT를 진행해주실 담당자 분들과 첫 대면을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한국에서 온 저희 둘은 외투를 벗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담당자 분께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코트를 입은 채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자리에 앉을 때는 코트를 벗어두는 것이 매너이다. OJT기간 동안에는 일본의 문화와 기업에 대하여 배우러 온 것이니 일본의 매너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때 다시 한번 제가 이번 OJT에 일본에 대하여 배우러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열심히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놀랐던 점은, 한국인 신입 직원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회사에 있었던 분들은 IT관련 분야의 전공자는 아니고 일반적인 한국의 인문계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인데, JLPT자격증을 따고 한국에서 IT관련 국비연수를 받고 일본에 바로 취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생각하면, IT분야의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IT기업에 취업 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지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IT기업에서 IT분야 전공자가 아닌 일반 인문계 학과 출신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대부분 신입사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내 교육 및 연수를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연수 기간이 많이 짧아졌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개월에 걸쳐 신입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신입사원들은 일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비전공자라도 국비 교육만 받고 나면 회사에서 어차피 업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문과출신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상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도 전공에 따른 직업군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한국보다는 그 차이의 벽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예전의 경우엔 직원들에게 사내 교육을 많이 시켰었다고 들었지만, 최근의 경우엔 특별한 사내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직원들을 투입하거나, 연수기간이 있더라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연수만을 실시하고 바로 일을 시키는 기업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신입이지만 다양한 스펙과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았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은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있어서 직원의 실무경험 및 스펙 보다는 그 사람이 회사에 잘 적응하여 지낼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

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제가 OJT담당자 분께 “여기 일본 IT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선 어떤 것을 주로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질문 했을 때에 담당자 분은 특별한 기술을 알아야 하는 것 보다는 일본어 실력과 의사소통 능력, 일본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언어 기술과 일본에서의 서비스 -

제가 이번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일본의 기업 문화는 어떠하고 일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알고자 하였으며, 다이코 회사에서 진행되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은 제가 궁금한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일본의 기업 문화는 어떠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노동환경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진행된 것 같습니다. OJT기간 동안엔 회사의 소개에서부터 시작하여 간단한 프로그래밍 실습 및 언어기술 훈련, 일본에서의 서비스 문화 등 다양한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었는데, 바로 언어기술 훈련이었습니다. 언어기술 연수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림을 보고 해당 그림에 관하여 말로만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설명을 듣고 빈 종이에 해당 그림을 말로 설명만 듣고 그림을 그려내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활동을 하면서 왜 IT기업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까 의문을 가졌습시다만, 연수를 진행하면서 이 활동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그림을 설명하는 때였는데, 설명하는 언덕 위에 나무가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언덕 위라고 해도 언덕 정상에 나무가 있다는 건지, 언덕 중간에 나무가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덕 정상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것이 ‘언덕 위’ 라는 표현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언덕 위라고 해도 각자 다른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고 계셨던 담당자 분은 이것을 보고, “IT에서는 팀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선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선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제대로 말했다고 해도 상대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예전에 조별과제를 할 때를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나는 틀리지 않은 말로 바르게 상대방에게 의견을 전달했는데 상대가 이해하지 못했으니 이해 못한 상대가 잘못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에 관하여 충돌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담당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목표는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 및 이해시키는 건데, 내가 올바르게 전달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인상 깊었던 연수는 일본에서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일본에 많이 여행을 오면서도 생각했던 것 이지만, 일본에서 어느 가게를 가든 대부분의 가게들이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것들이 단지 일본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친절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지만, 단지 사람들이 친절하기 때문만이라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수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상점부터 시작해서 회

사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중심의 사고방식'을 중요시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비스'라는 것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욕구는 무엇이며 그 욕구를 충족 시키는 것이 서비스 라는 생각이 중요시 된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보다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일본 전체적인 서비스의 수준을 높였다고 합니다. 담당자 분께서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비즈니스 업계에서 일한다면, 자신도 그에 걸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위의 두 연수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 이었습니다. 언어기술을 배움에 있어서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 할 것인가' 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를 중요시 여기고, 서비스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보다는 '상대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자신 보다는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하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일본의 노동환경에 대한 생각 -

이번 연수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던 것은 일본에서의 노동환경은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점심시간에 일본에 취업한지 수개월 정도 되었다는 한국인 직원 분에게 간단하게 궁금한 점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물가가 높고, 교통비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서 한국보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일본에서 집을 구하여 생활하고 있는 회사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였습니다. 식료품이나 생필품들에 관한 것들에 대해선 한국보다 저렴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비슷하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액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 교통비가 비싸도 크게 부담될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세에 대해서도 다이코 기업의 경우는 회사측에서 집을 구해주고 35-40% 정도 사측에서 집세 부담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일본에 같이 거주신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일본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교통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집세에 관해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한국과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신입사원들에게는 일을 그다지 많이 주지 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후에 OJT 담당자 분께 질문을 드렸더니, 일본에서는 신입사원에게 책임을 질만한 일은 거의 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쌓고 난 뒤에야 제대로 된 일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담당자 분은 일본은 신입사원을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서 노동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갔던 기업에서는 한국인 직원들이 일본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감안해서인지 아침마다 직원들에게 어제 회사가 끝나고 무슨 일을 하면서 지

냈는지를 물어보면서 일본 문화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도 하고, 직원들이 모르는 일본어 표현이나 부족한 점 등을 잘 챙겨주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원들을 마치 회사의 가족인 것처럼 대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일본 취업에 가장 매력을 느꼈던 것 중 하나는,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구조조정을 이유로 직원들을 쉽게 자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일본 기업의 담당자 분께 질문을 드리니 일본에서도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구조조정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하는 것이 없지는 않다라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말 어렵지 않다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만 크게 일으키지 않는다면 대부분 정년이 될 때까지 회사에 재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일본 전문가이신 교수님께도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일본과 한국 기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기업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동자를 먼저 해고하고 주주의 배당을 우선시하여 지키는데, 일본 기업의 경우엔 회사가 어려워지면 주주의 배당을 먼저 줄이고, 간부들의 임금을 조정하고, 최후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것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IT업계에서도 대기업에 취업하면 40대가 되면 대부분 명예퇴직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40대가 되어서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한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직원들을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해가고 있는데, 고용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직원들을 쉽게 자르지 못하는 일본과는 상반되어 보였습니다. 퇴직 이후에 재고용의 기회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의 유연성만을 강조하는 곳 보다는, 노동자를 중요시하고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곳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 프로그래밍 실습 -

회사에서 실시한 연수 프로그램 중에는 Python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IT기업이니 만큼, 연수에서 최대한 실무와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실습 이전에 OJT담당자분께서 충분히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주셨고, Python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과제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IT 비전공자인 사람들과 저와 같이 OJT에 참가한 분도 컴퓨터와 관련된 전공이 아닌데도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완성 했을 때는 간단했지만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프로그램을 서서히 완성시켜나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OJT의 마지막 날에는, OJT에 참가하면서 지금까지 배우고 느꼈던 점들을 정리하여 직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회사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들과 일본의 노동환경과 회사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여 PPT를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니, 이번 단기 인턴십에 참가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준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어떻게 스펙을 쌓아서 취업하고 먹고 살지 만을 걱정해왔지만, OJT를 다녀오고 나서는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취업하여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새로운 선택지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사람이기에 한국에서 취업하여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OJT를 다녀와 보니, 단순히 한국 안에서 어떻게 살지 만을 고민하기 보다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일본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인생의 선택지가 새롭게 늘어난 느낌이 듭니다. 한국 안에서만 취업하여 사는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일본에 관심이 있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거나 일본 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OJT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일본에서 취업하는 것이란 어떤 것이고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지 직접 느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넓게,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